



식품의약품안전처

7월호

7월호

신통방통

궁금할땐? 신통방통!!

수제맥주 위생관리 편

[자세히 보기](#)

FOCUS

#신통방통

신통방통
수제맥주 위생관리 편

#식약인터뷰

음식으로 문화를 말하다
- 이욱정 프로듀서

#정책브리핑

전지적 설명시점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란?

NOW

#이슈클릭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알고 프로답게 섭취하자!

#건강꿀팁

여름철 불청객 모기~
모기퇴치제 사용할 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어서와~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짓은 처음이지?

CONNECT

#식약처스케치

(2018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사람 중심, 바이오 경제'를 주제로
바이오의약품의 발전방향과 미래 모색'

2018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사람 중심, 바이오 경제'

#열린소통

미션 파서블! 국민소통
- 제4회 열린포럼 개최

열린 MEDIA

PDF 웹진 보기

지난호 보기

기사 모아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밀린마루

7월호

#신통방톡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밀린마루
www.mfds.go.kr/web

신통방 TALK
수제맥주 위생관리 편

상점 궁그미
농코리아— 오~ 필승코리아~

친절한 서장C
대한민국!!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넘 멋있었지~
김동이았어
Fighting Korea

상점 궁그미
랑드 빌드컵 범구낭!
이쁜 줄렀었지? 난 어제도
하고 족구 보면서 맥주 마셨지나~

리한 예원이
우쭐지~ 요즘 맛있는
주도 인기자나~!

친절한 서장C
하이지!~ 수제맥주의
리필을 강화하고 있어~

1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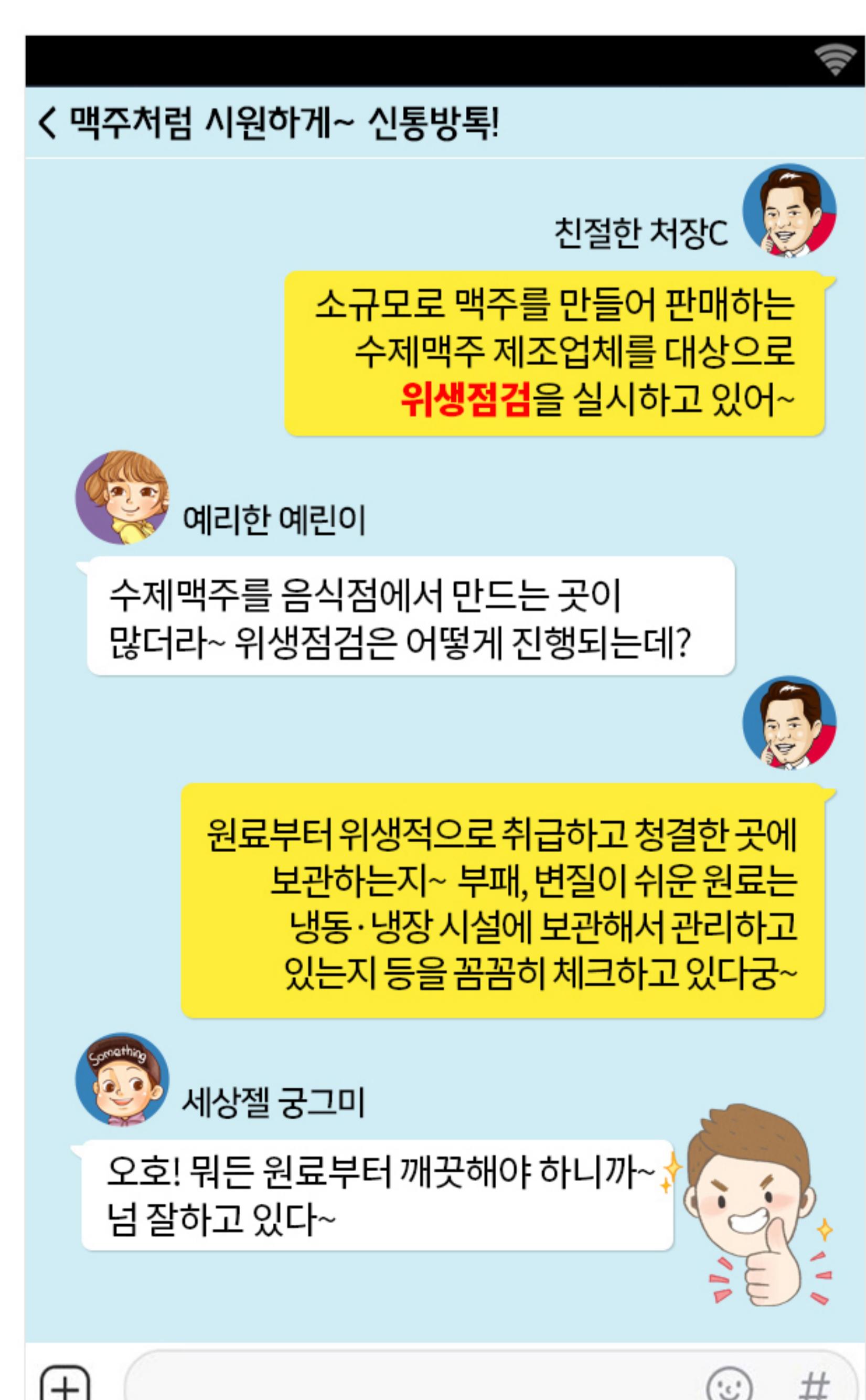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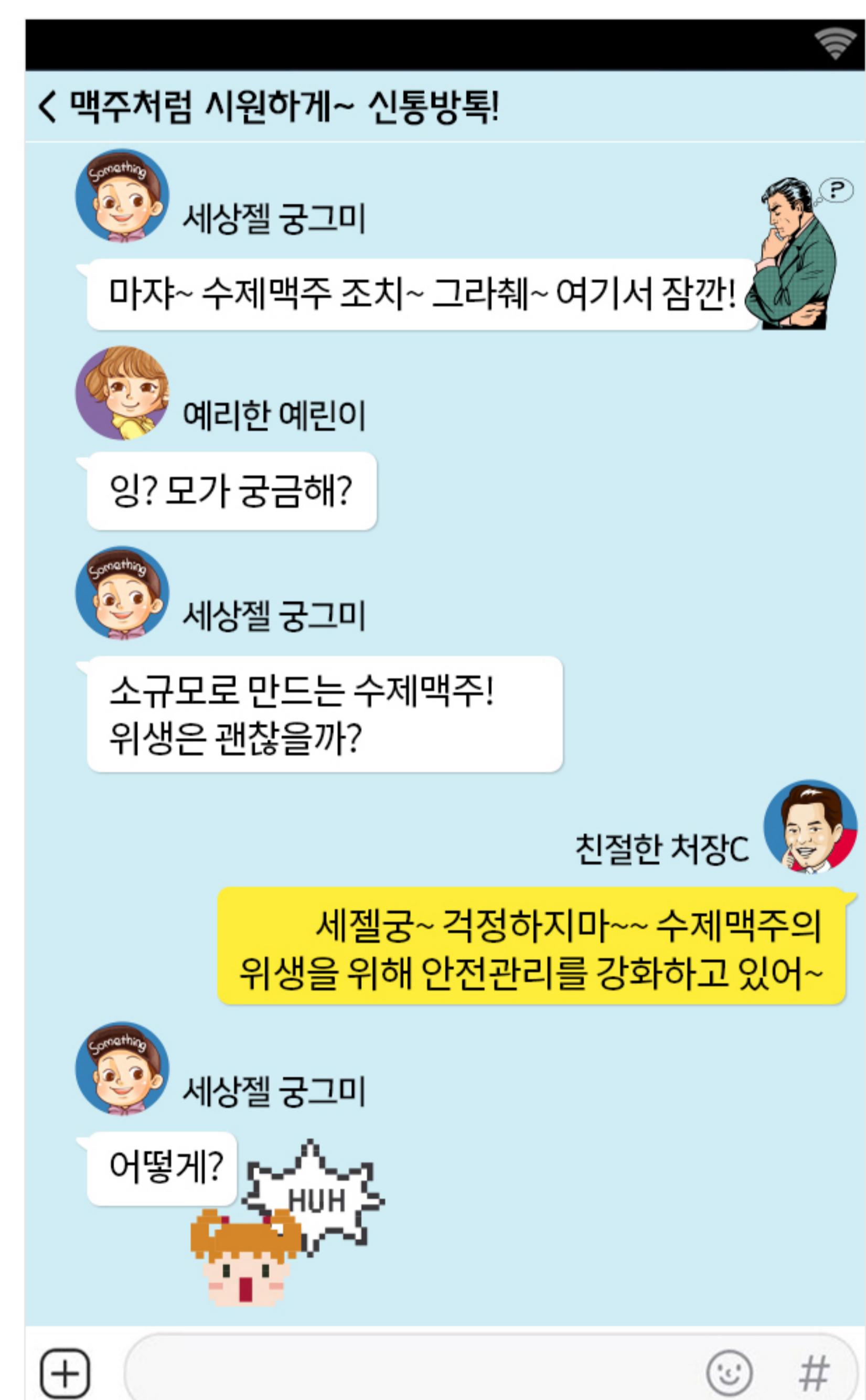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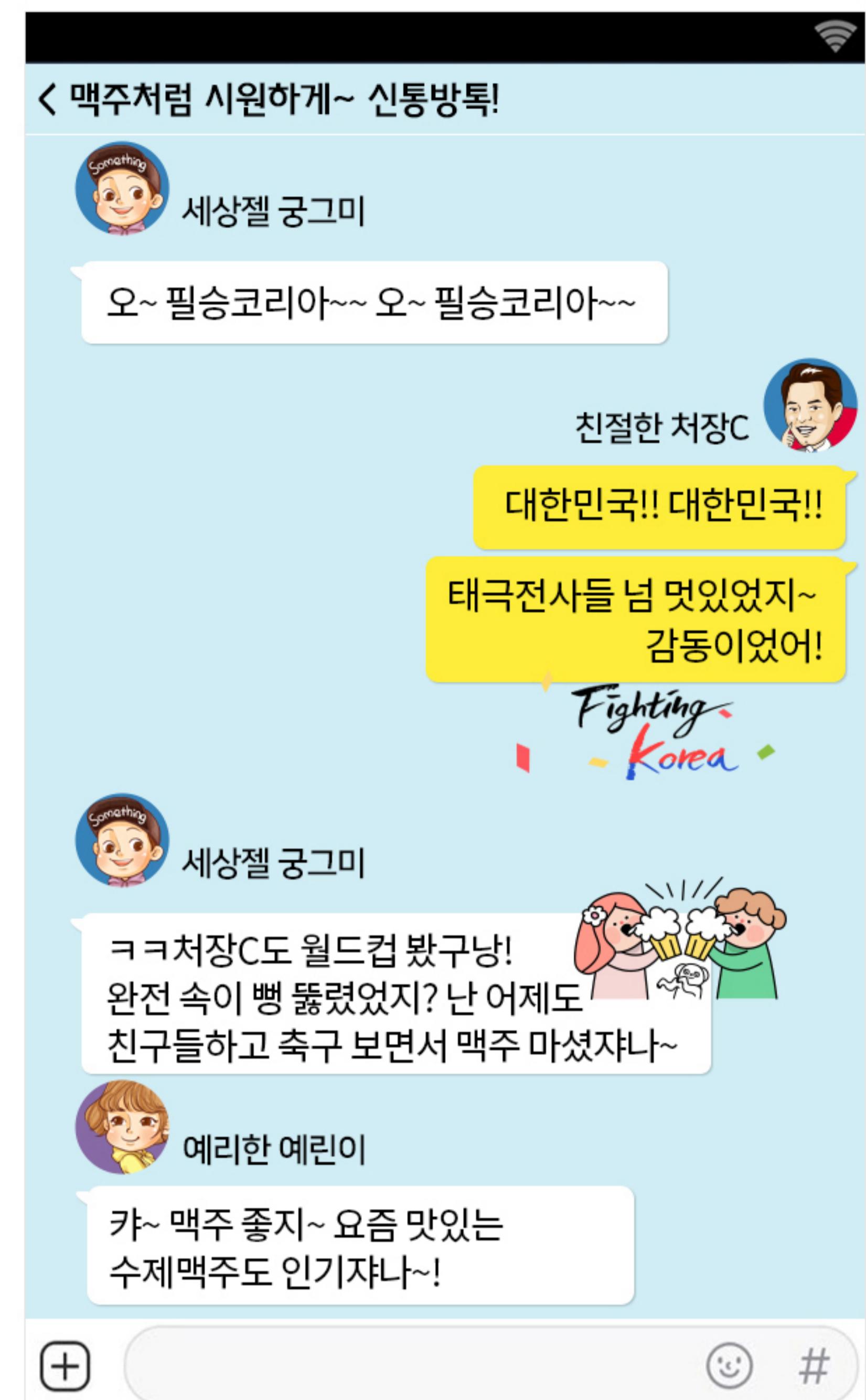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07월호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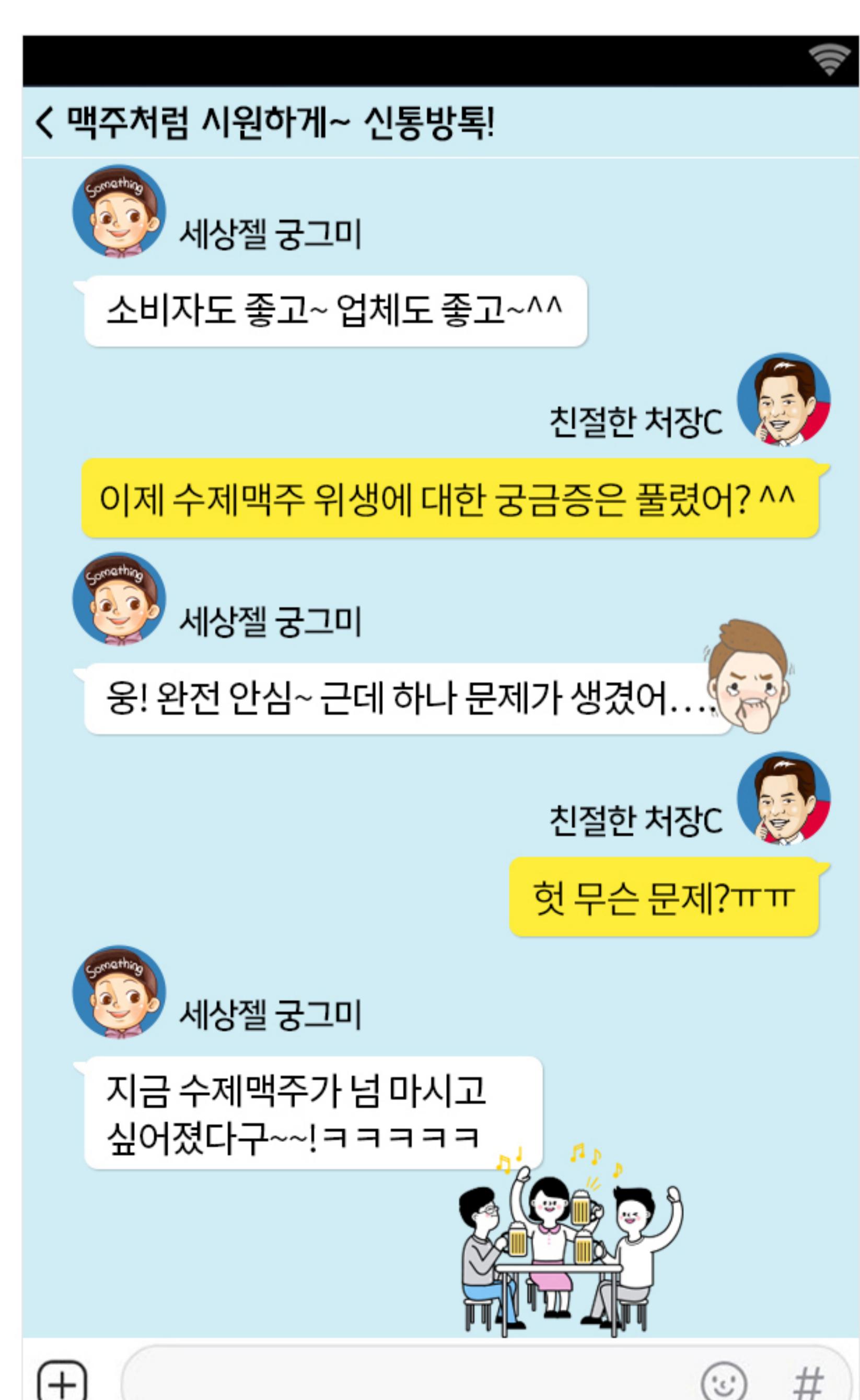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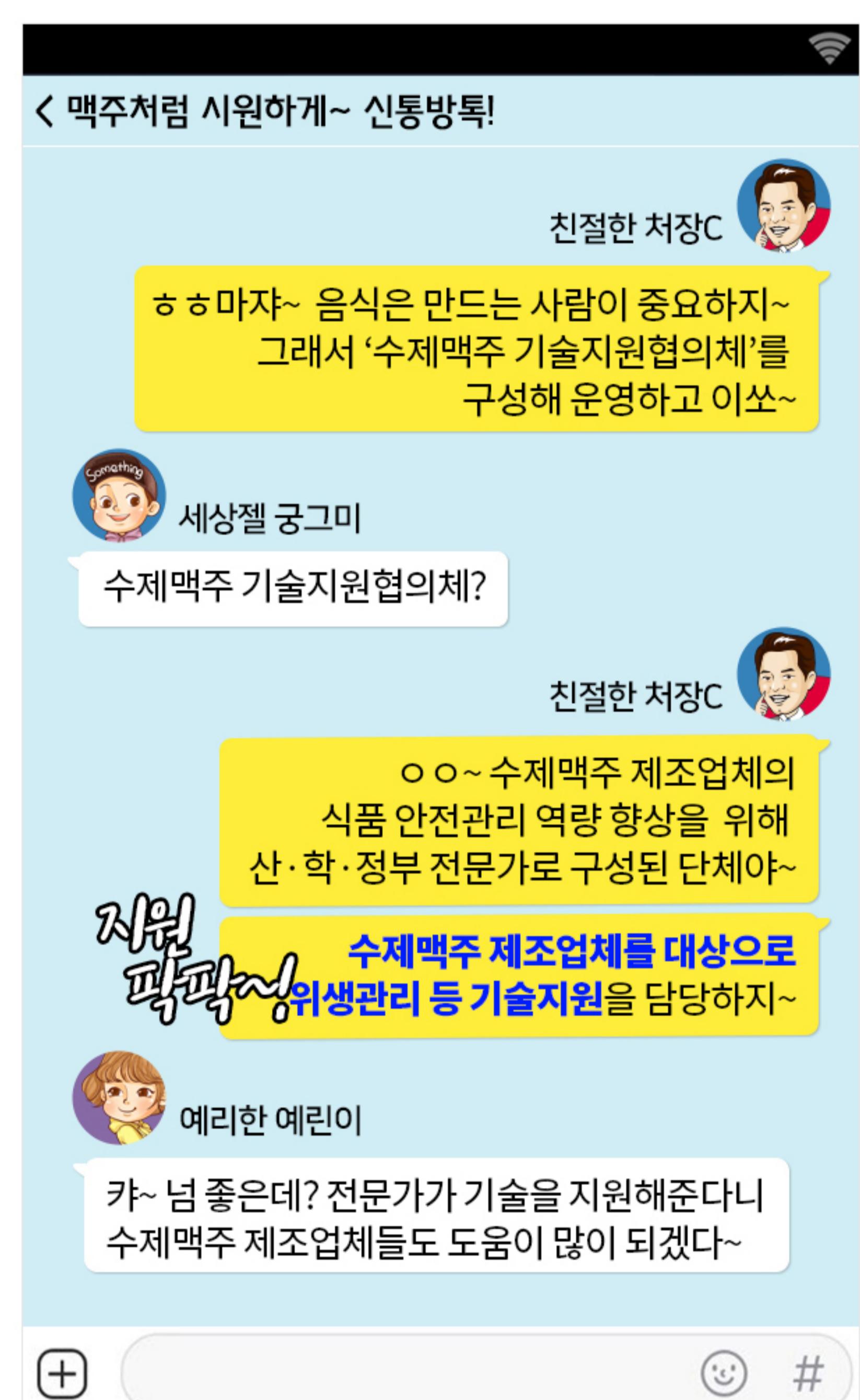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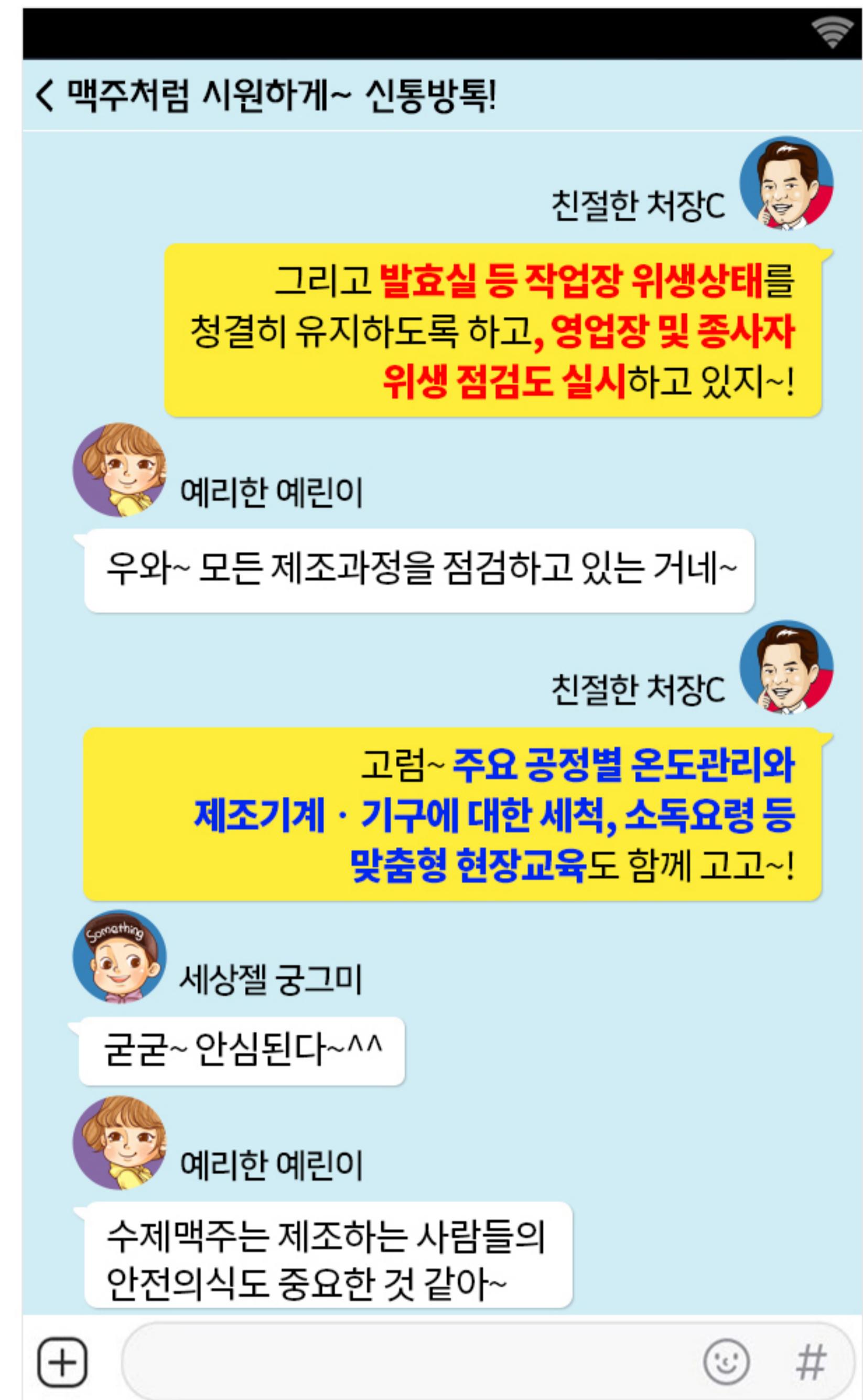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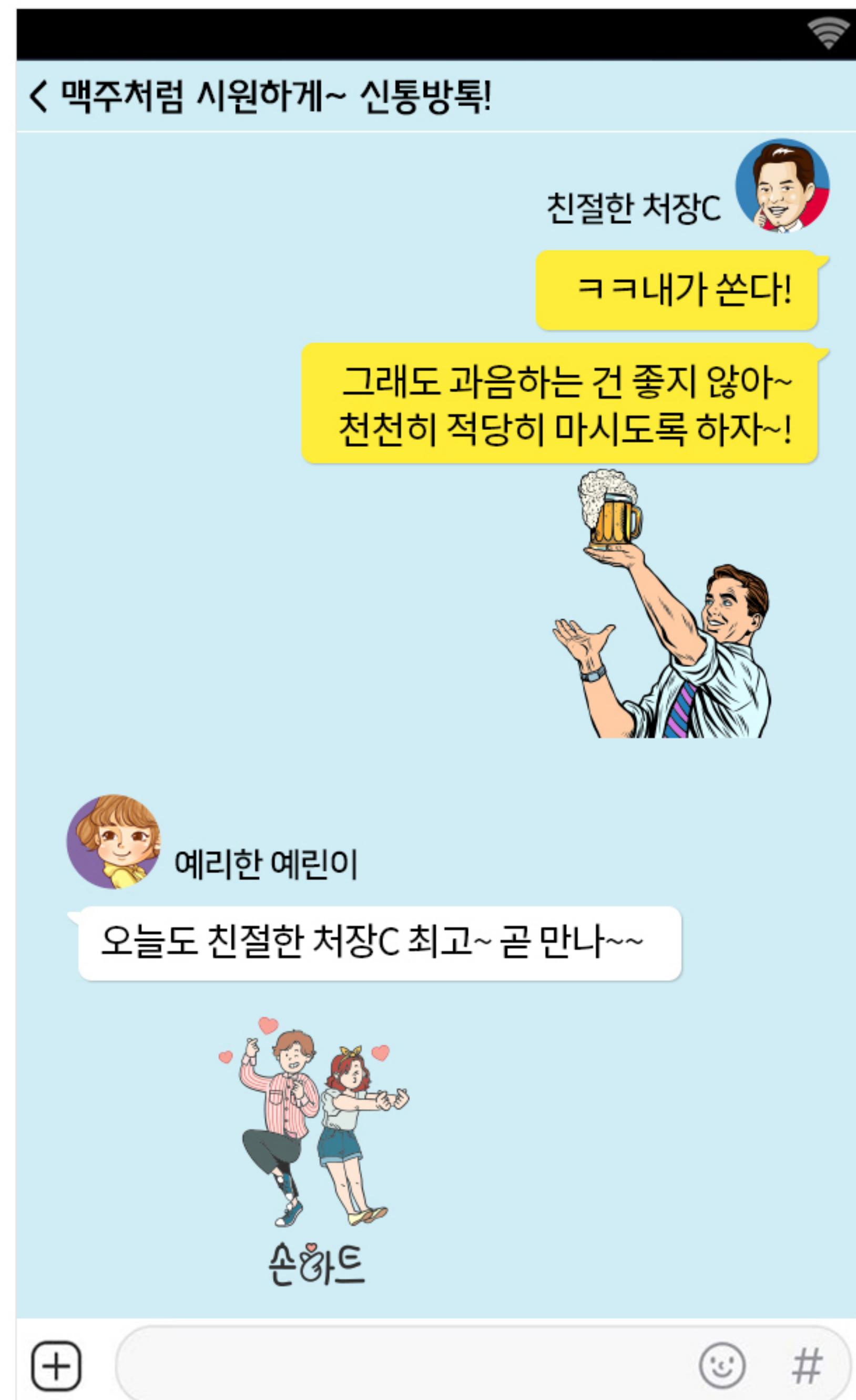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맥주마루

7월호







#식약인터뷰



이옥정 프로듀서는 음식과 요리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 각 나라와 도시의 문화를 조명해왔다. 음식은 곧 그 나라의 문화이자 우리 자신이 라고 말하는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주한 음식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또한 우리의 음식문화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 옥정 프로듀서를 만나 음식문화,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음식', '요리'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은 만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식은 결국 우리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가장 친해지는 순간이 같이 밥을 먹을 때입니다. 또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잘 먹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식은 곧 우리 자신과 문화의 일부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외국인이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벽을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면 거리감이 들죠. 문화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음식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창조해온 유산 중 하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지혜와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문화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Q. 가장 흥미로웠던 음식문화를 가진 나라 또는 도시는 어딘가요?

페루 리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음식이 그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 사례죠. 리마는 페루의 임카문명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 이곳에서 미식혁명이 일어나면서 페루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창의적인 젊은 요리사들이 선두에서 서서 토종 식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했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생선을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생선을 저장할 수 있도록 회처럼 얇게 잘라 레몬즙이나 라임즙에 재우는 서비스체를 만들며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일반 가정식이었죠. 그러나 현재 리마의 요리사들은 페루의 아마존과 안데스 지역에서 얻은 파이(대구 물고기), 새우, 김치와 옥수수 등 다양한 재료들과 결합해 색다른 서비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에서는 나는 아자나무 손을 국수처럼 가늘게 벗겨서 아마존에 가져온 유카라는 식물가루와 두어 가지 기름을 버무려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현지인들이 먹던 채소가 하나의 요리로 탄생한 거죠. 전통적인 음식을 지역에서 자란 식재료와 결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는 반찬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도 반찬을 제공하지만 우리처럼 다양한 반찬을 차려놓고 먹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30여 개국을 다녀봤지만 메인요리 2~3가지가 전부죠. 식당에서도 기본으로 5~6가지의 반찬을 내놓고, 어떤 곳은 10가지를 넘게 제공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무척 놀라면서도 푸짐한 인심에 정을 느끼곤 합니다.

Q. 음식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식품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과 서유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코르동블루 요리학교를 다녔는데, 1학기만에 '위생'이었어요. 프랑스는 자신들의 음식에 자부심이 강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위생이었죠. 홍콩이나 중국, 동남아 등은 차이는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약간 너그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음식을 먹을 때 '배탈이 나진 않을까?'라며 우려하게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죠. 식약처에서 무척 철저하게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HACCP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으로 가공식품, 축산물, 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음식위생 수준과 정부기관인 식약처의 정책과 시스템이 잘 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

Q. 음식문화는 긴 시간 형성되어 이어져오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변화 중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집밥의 시대에서 외식의 시대로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한국인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이 없어진 게 2000년대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집밥을 먹어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외식, 배달, 간편식 등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죠. 예전에 집밥은 어머니가 만들어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재료를 쓰거나 비워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생각했죠. 하지만 외식의 시대가 된 지금, 우리는 매끼를 먹을 때마다 안전하게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기업이나 외식업체에게 더 철저한 안전과 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밥을 먹어왔던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에게 가진 신뢰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현재는 외식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이 일상식이 되는 대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품을 담당하는 기업과 외식업체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죠. 음식을 다루고 직접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Q.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오셨습니다. 만약 식약처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주제를 담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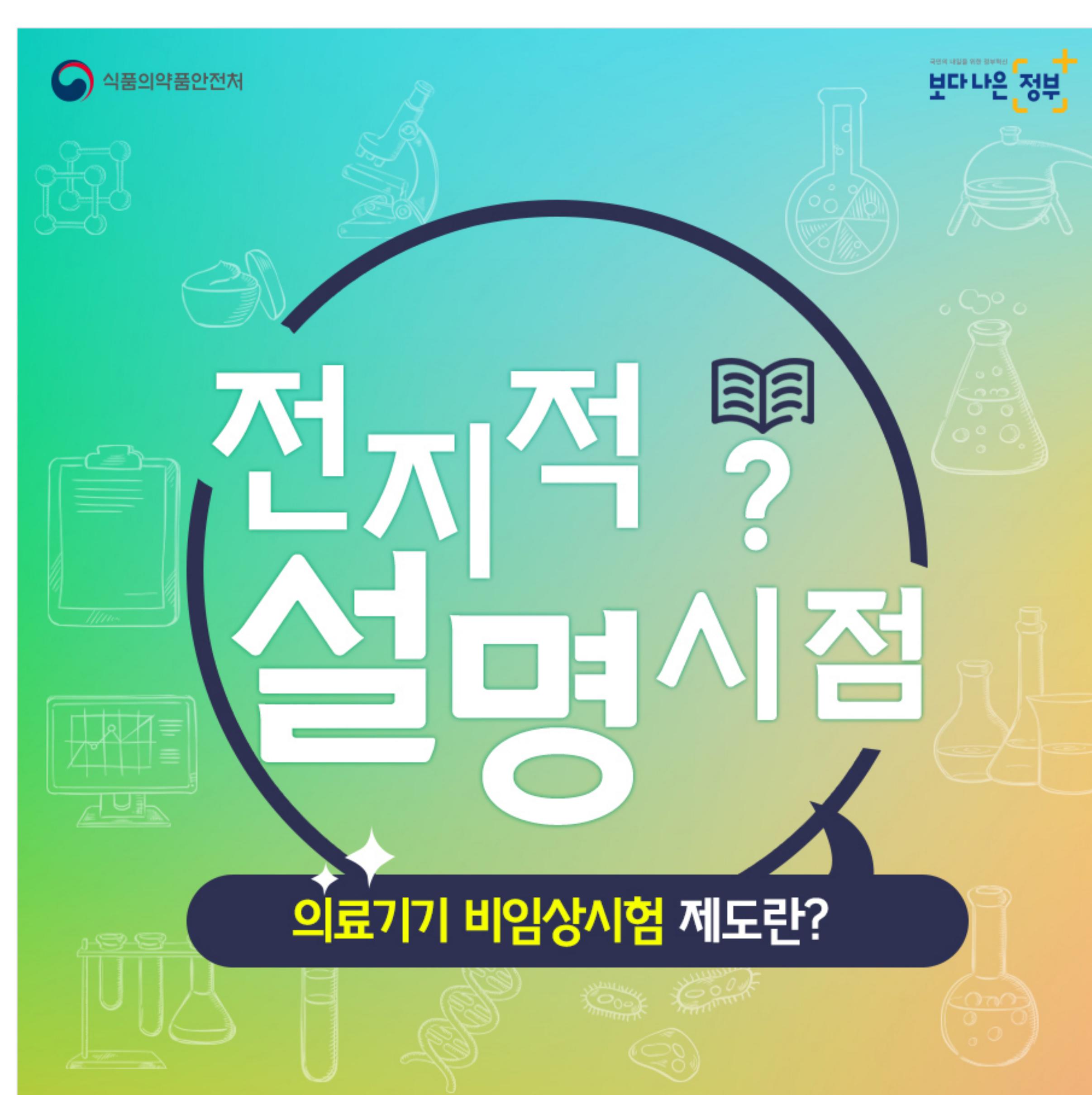
안 그래도 식약처와 꼭 함께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는 FDA에 뒤지지 않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수준이 높죠. 우리나라처럼 식품 포장 뒷면에 성분표시가 자세하게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식약처 CSI 과학수사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식품과학과 관련된 식약처의 활동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알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옥정 프로듀서

KBS <주제60분-학교급식이 위험하다>(2004), <문화의 질주-맛있는 나라의 유혹>(2006), <KBS스페셜-주방의 철학자>(2009), <KBS스페셜-셰프의 탄생>(2012) 등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해왔다. <누들로드>(2008)는 미국 피버디 어워드Peabody Award, ABU, 한국방송대상 등 국내외 방송관련 최고상을 휩쓸었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방송되었다. 이와 함께 다큐멘터리 <요리인류 키친>(2015~2018), <요리인류-도시의 맛>(2017)을 연출했다. 저서로는 <이옥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쿡쿡>, <누들로드> 등이 있다.

#정책브리핑

1 /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이란?

콘택트렌즈, 인공관절 등이
인체에 접촉되거나 삽입되었을 때,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준수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해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제도 왜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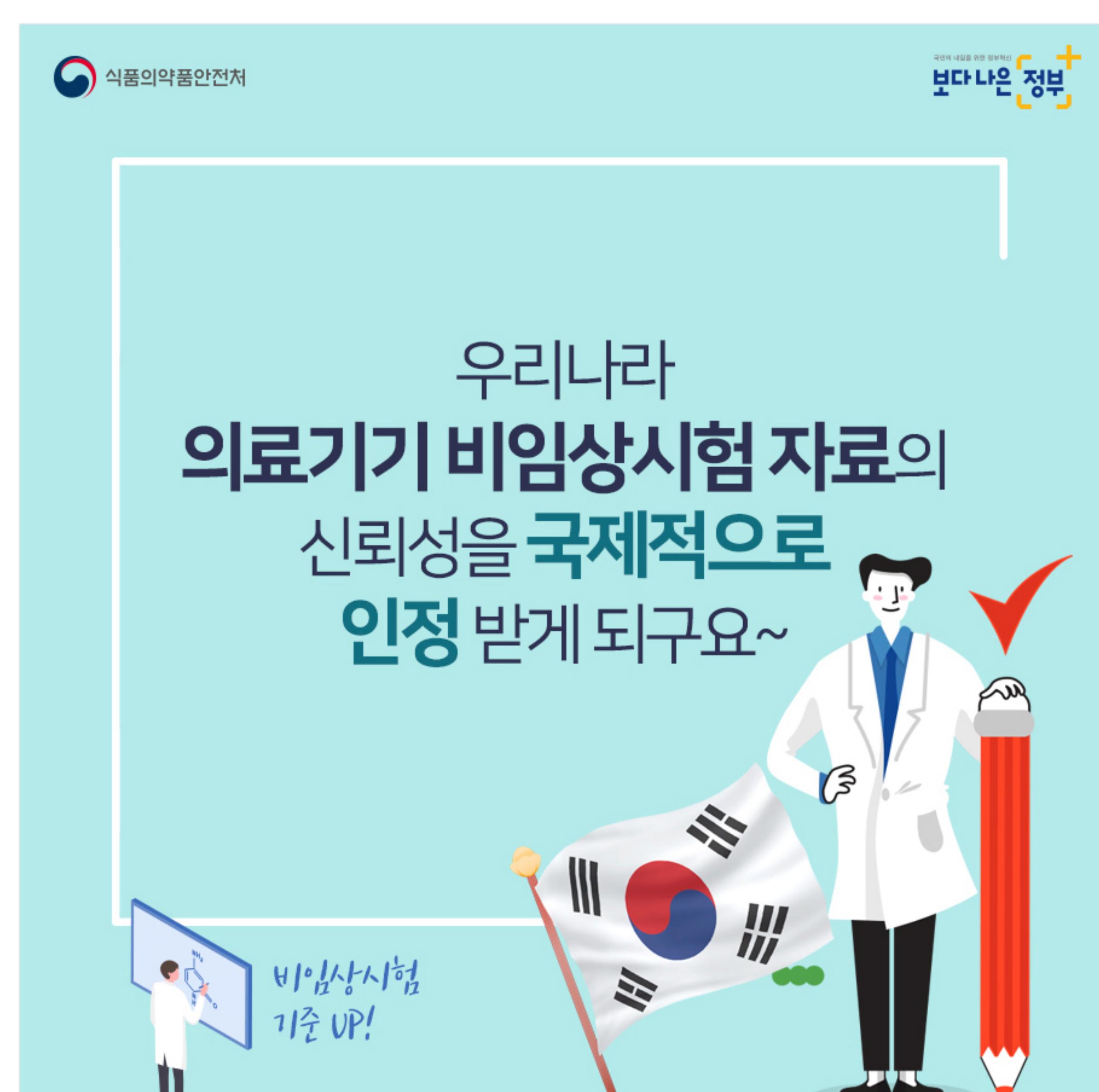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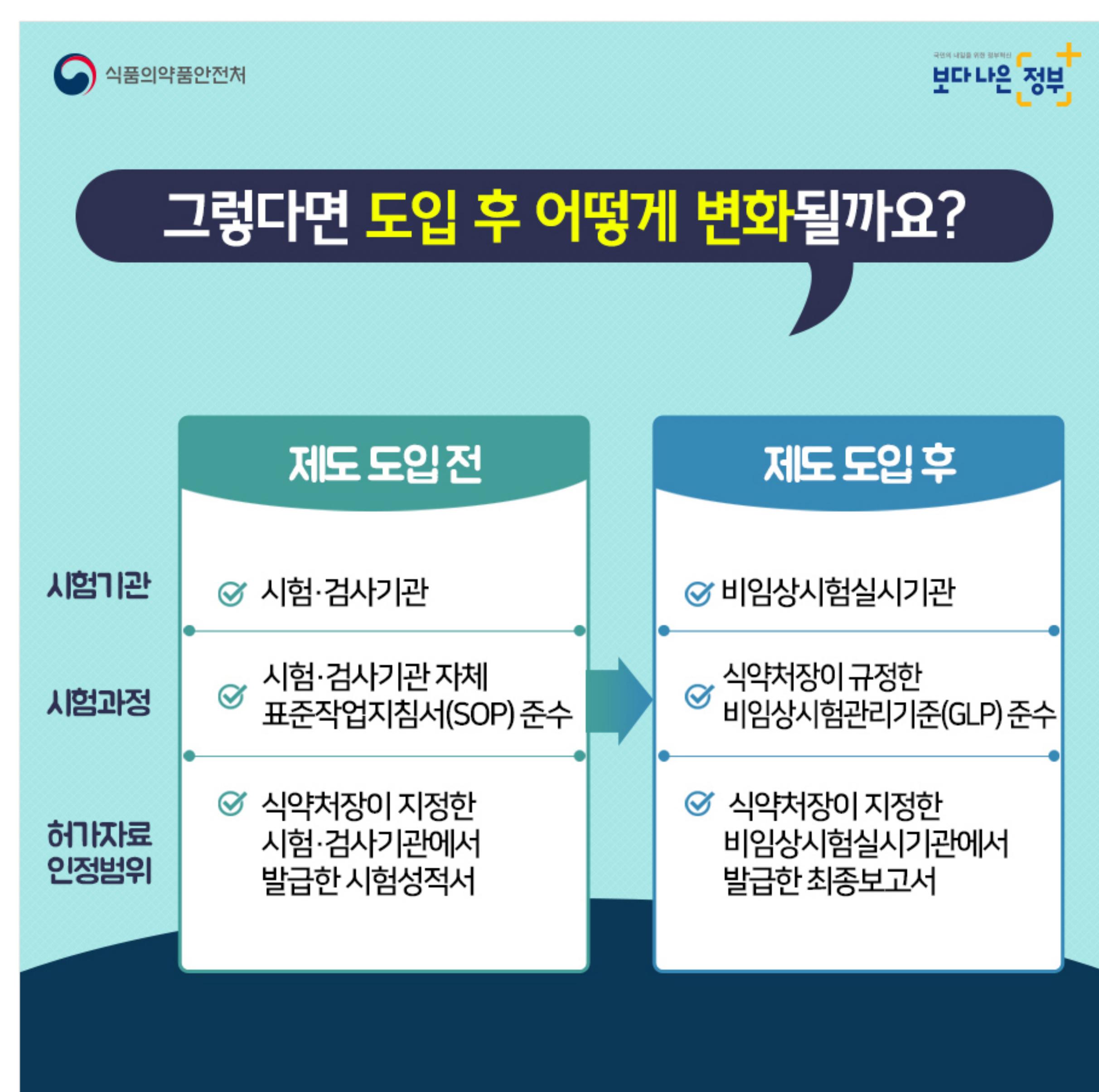
OECD는 비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현재
OECD 회원국(35개국) 및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6개국) 간
**비임상시험자료를
상호인정**하고 있답니다.

비회원국(6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OEC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7월호

#이슈클릭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m

제대로 알고 프로답게 섭취하자!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보다 나은 정부

에 좋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보다 나은 정부

가서 건강에 좋았던 군인들이 있는군

프로바이오틱스

1 / 10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보다 나은 정부

제대로 알고 프로답게 섭취하자!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보다 나은 정부

장에 좋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보다 나은 정부

가서 건강에 좋았던 군인들이 있는군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7회 마이

7월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어떻게 섭취할 수 있나요?

이전에는 발효유 제품으로 섭취됐지만
최근에는 과립, 캡슐 등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인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프로바이오틱스는?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해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 www.mfds.go.kr/web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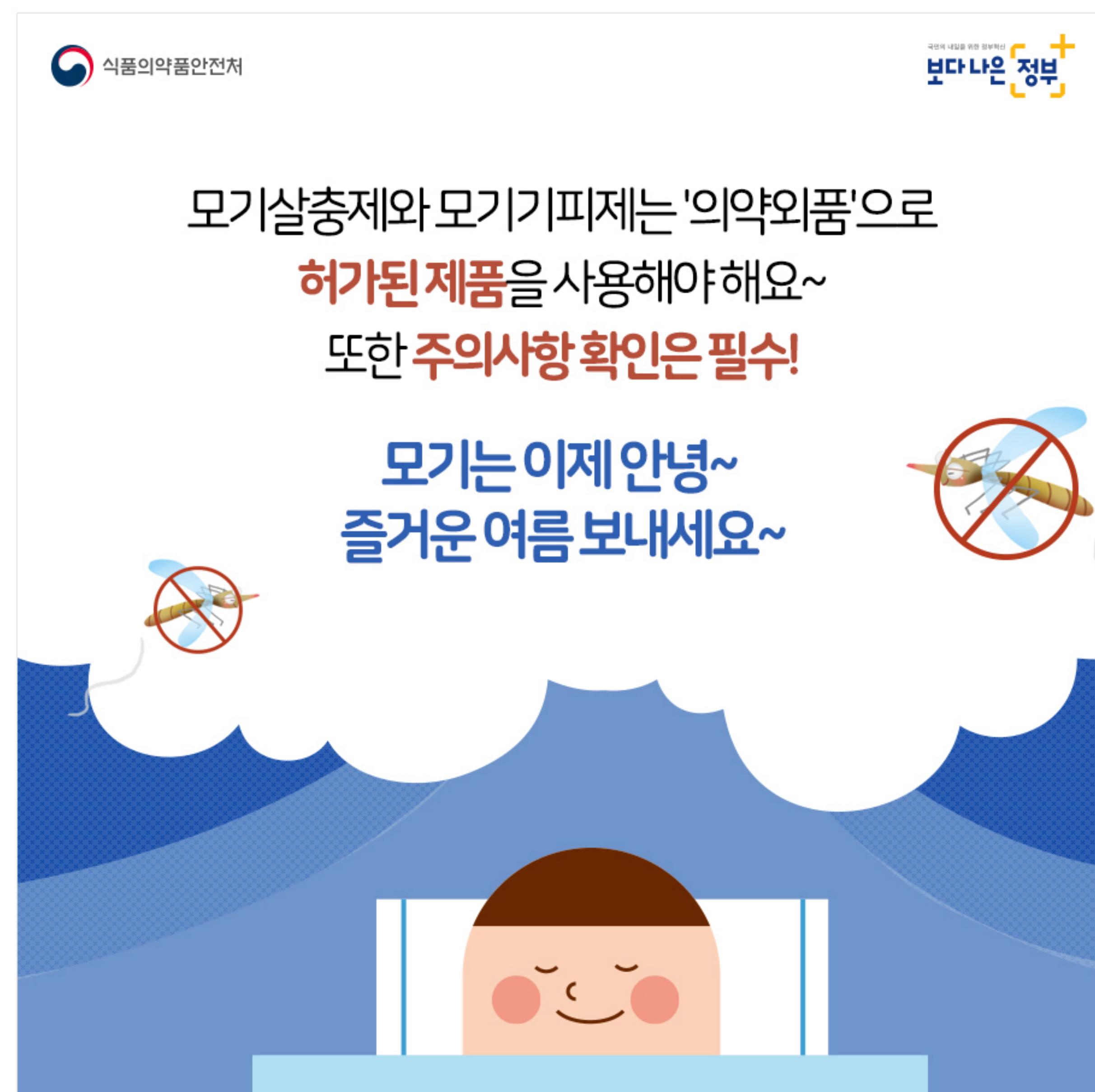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나은 정부

#건강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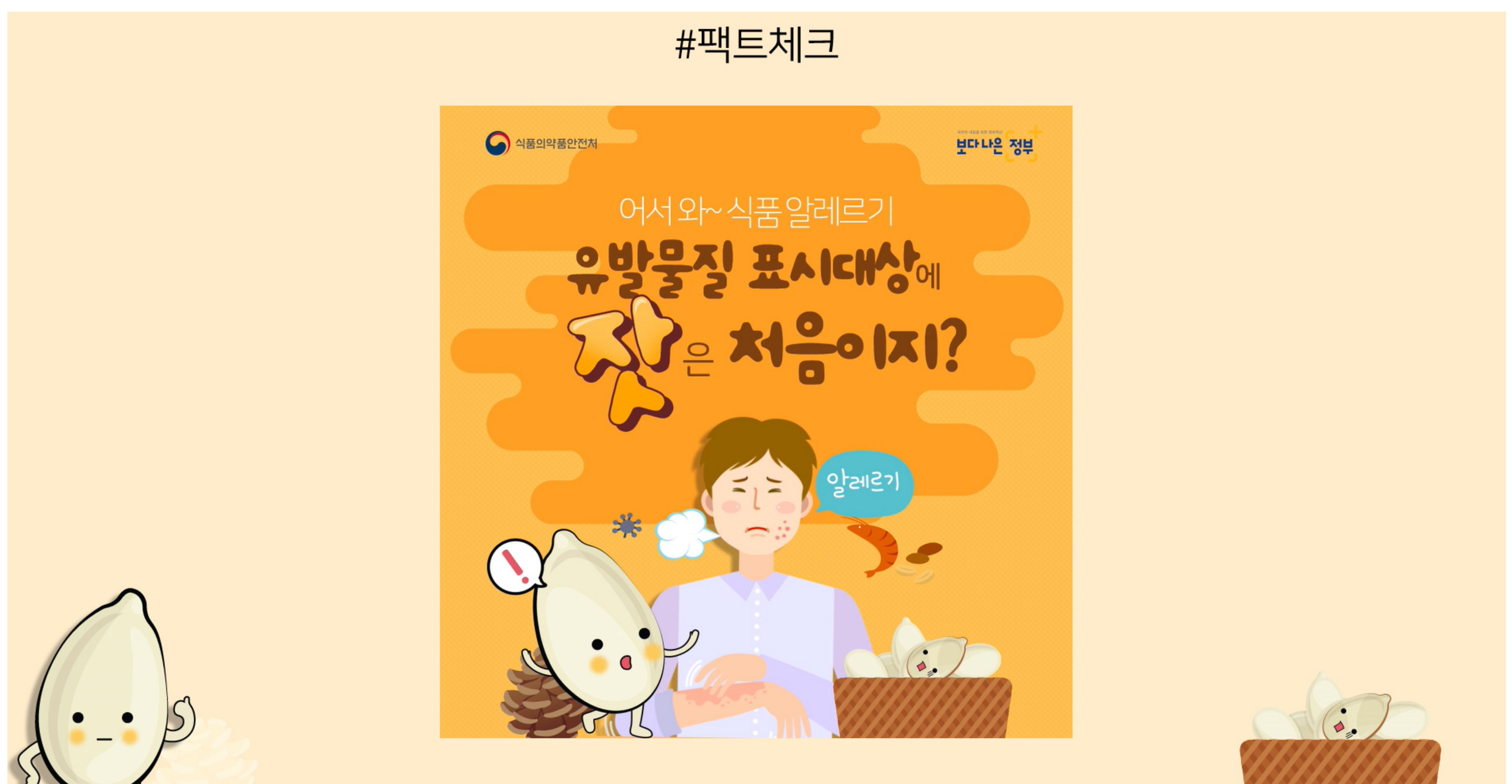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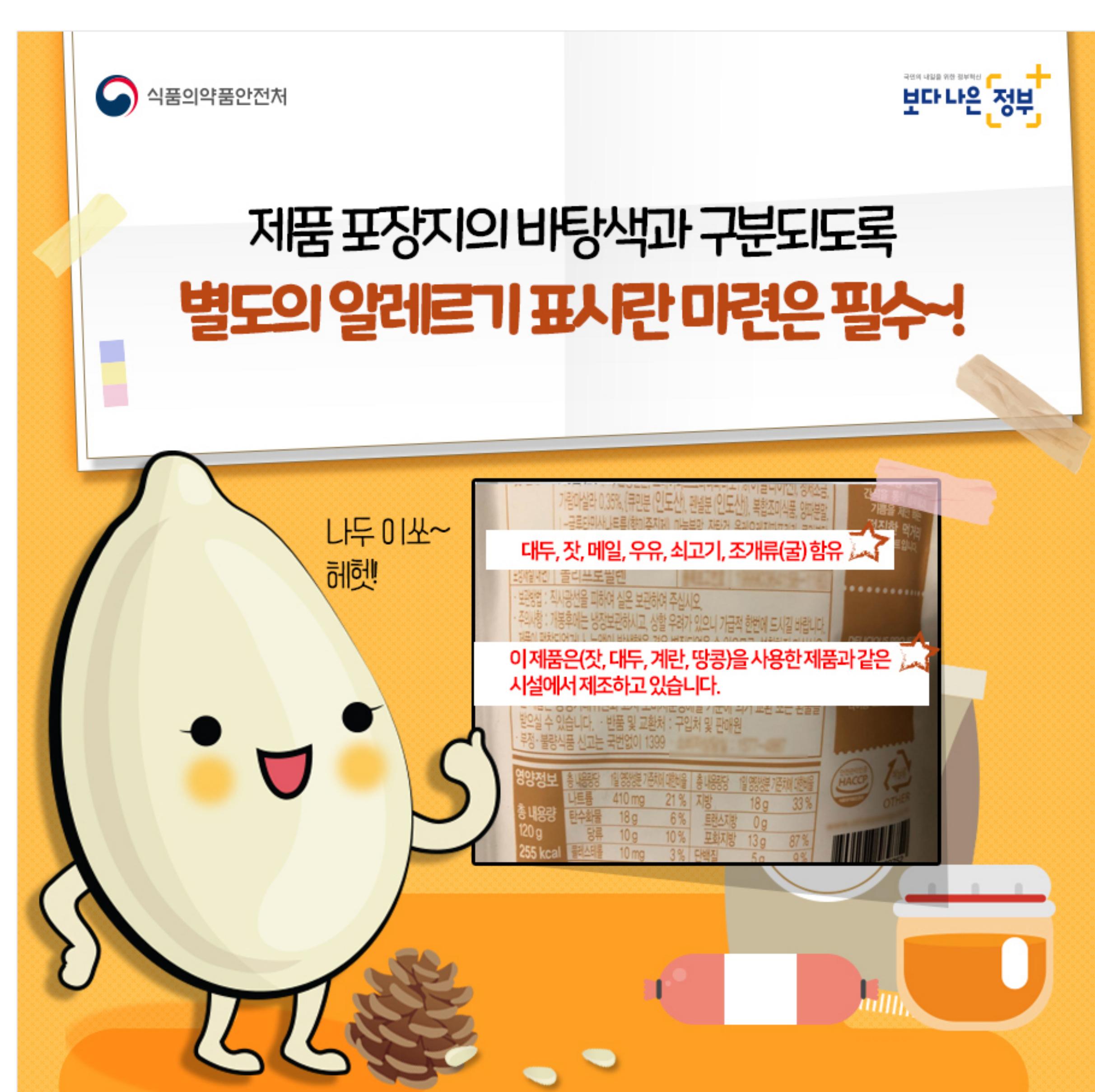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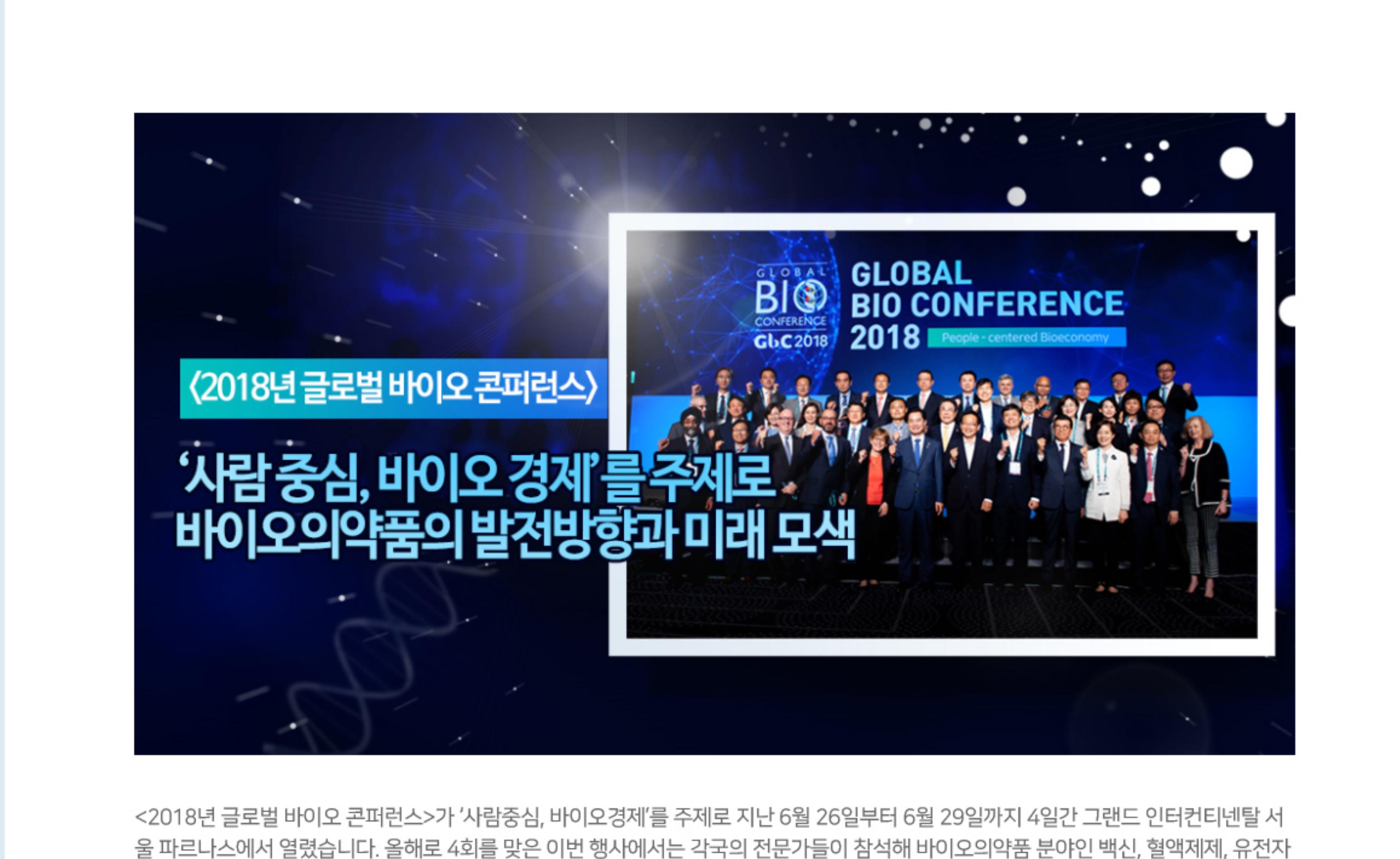
#팩트체크







#식약처스케치



<2018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사람중심, 바이오 경제'를 주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인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 조작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바이오의약품 동향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콘퍼런스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분야 최대 행사이입니다. 올해에도 정부,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 36개국 3,7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바이오의약품 분야 31개국 121명(해외 91명)이 참석하여 133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 개회식이 열린 행사장에는 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사장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체험과 제품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실현할 미래산업으로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보건의료 분야에 융합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세계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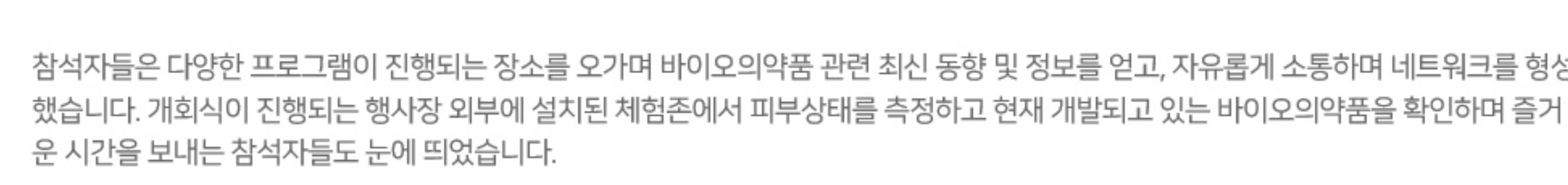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BT와 IT의 융합을 위하여'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각적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확장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규제와 제도 혁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리안젤라 시망오 WHO 사무차장이 '고품질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 브라이언 월슨 미 FDA 박사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약 개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인류의 건강과 헬스케어 산업 -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불러온 변화' 등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가 참석자들에게 또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체험 및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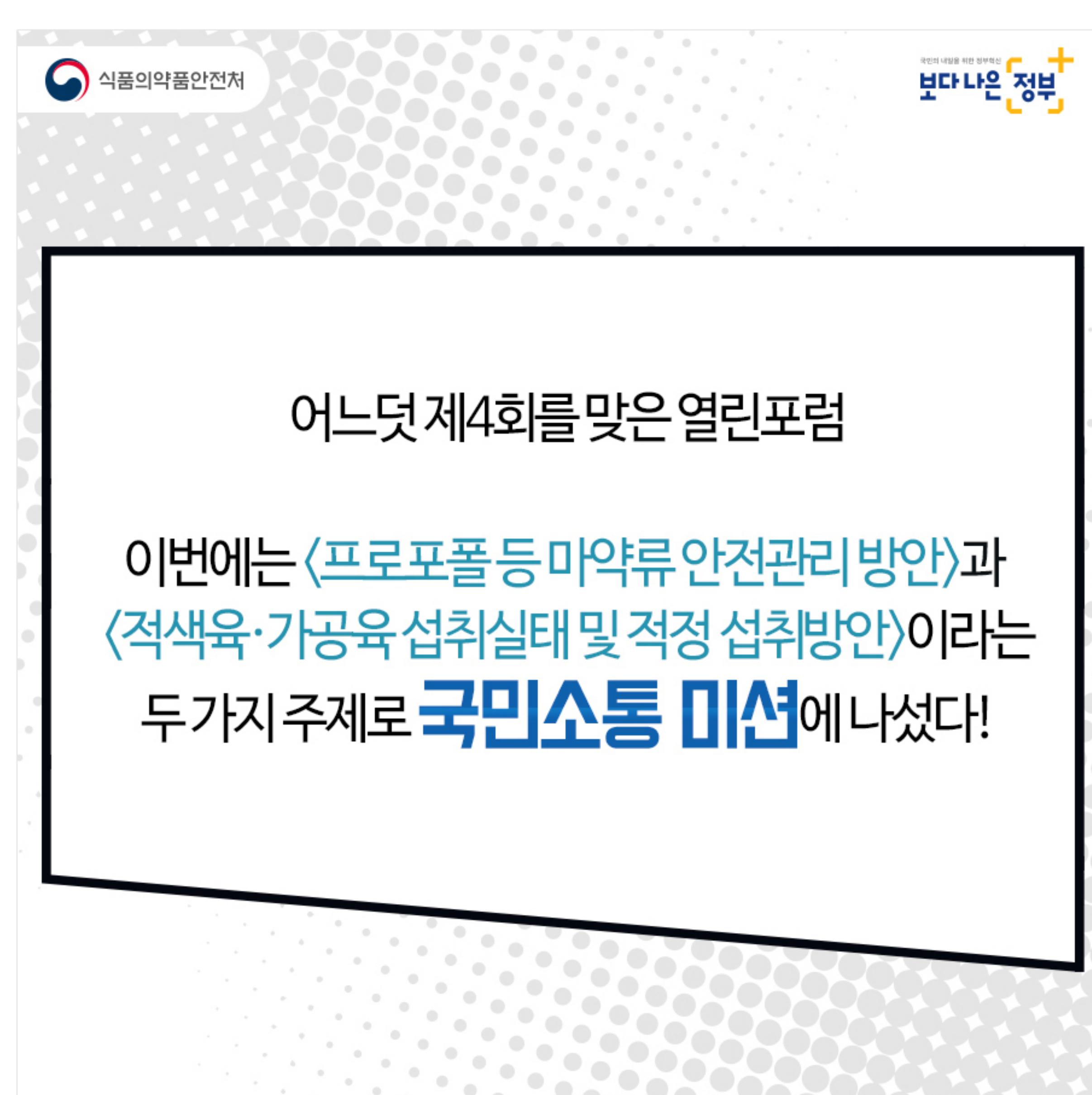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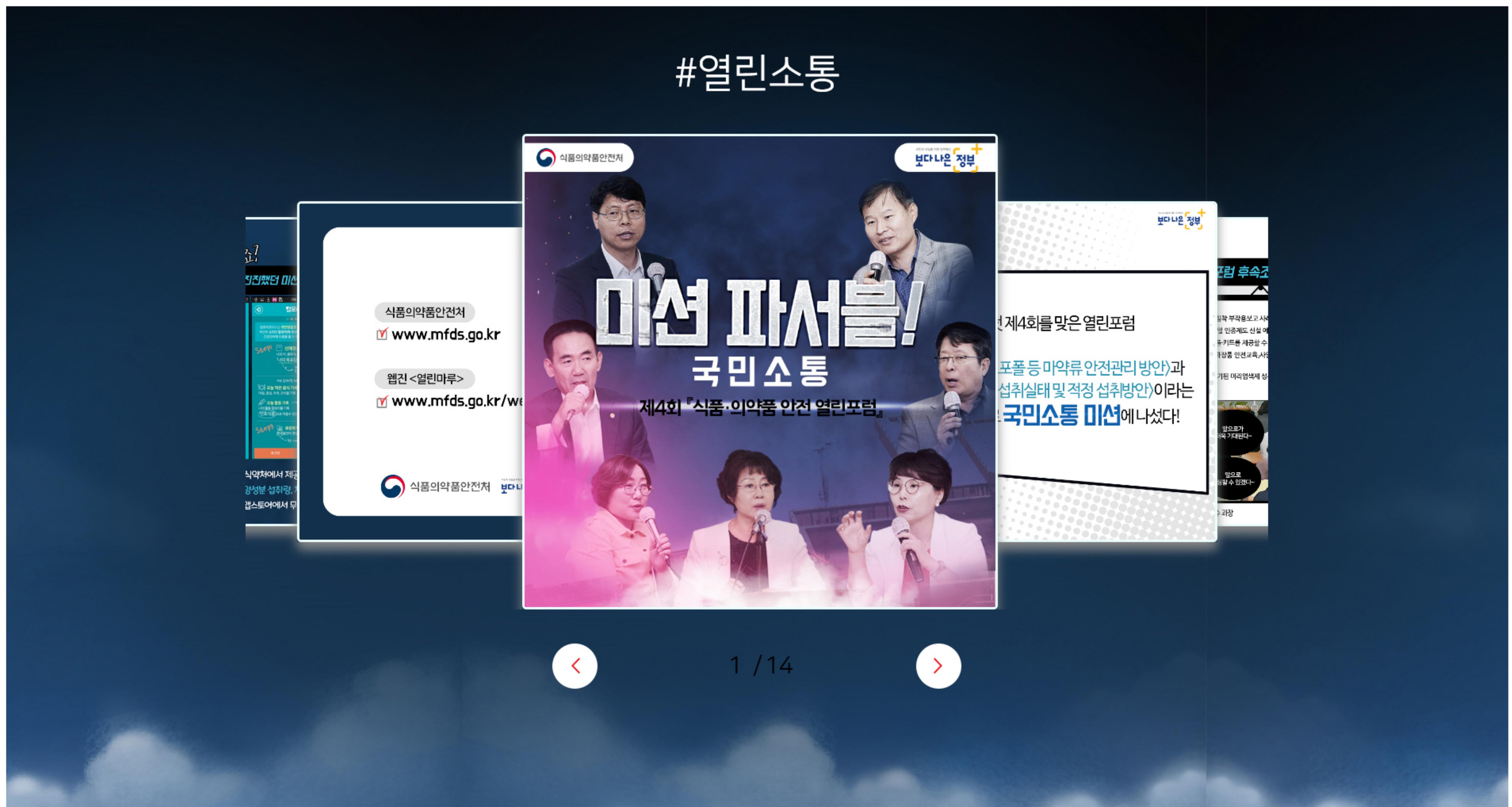
올해 콘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기조연설 및 특별강연, 백신, 임상통계, 용·복합 제품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포럼, 해외 규제 당국자 1:1 미팅, WHO PQ 1:1 미팅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WHO-MI 공동 워크숍 및 청년대상 취업 토크콘서트 등 연계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장소를 오가며 바이오의약품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체험존에서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오세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부스들을 둘러보았는데요. 류영진 식약처장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3D 바이오프린팅 시연부스, 피부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 등에서 직접 체험을 하여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올해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사람중심의 정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을 미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석학 및 규제당국자들과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기대해주세요~!



MISSION 미션1. 제3회 열린포럼 후속조치를 설명하라!

제3회 열린포럼에서 전문가 및 국민의 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한 결과입니다.

- 머리염색제 색소침착 부작용보고 사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천연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 신설 예정('19.3)
- 패치테스트용 샘플-키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18.12)
-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사업 등을 통해 염모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강화
-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머리염색제 성분의 인체영향 등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

식약처 소통협력과 안광수 과장

MISSION 미션2. 4회 열린포럼 주제발표를 완료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와라!

주제 1. 의료용미약 오남용의 실태
경희대학교 송연화 교수

마약류 317종, 미약 112종, 항정신성의약품 245종, 대마 4종, 임시마약류 104종
마약류진통제 및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위해 유통·투명성 확보 필요

주제 2. 온라인미약류 불법 유통현황 및 대응
대검찰청 박기영 사무관

해외 SNS 계정·모바일 보안메신저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 증가 추세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조사 및 마약류 판매 등 광고금지 처벌규정 시행

주제 3. 달라지는미약류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마약류 품목 및 안전정보DB 대국민 개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선별·집중 감시

MISSION 미션3. 패널토론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라!

요원1: 경희대학교 송연화 교수
요원2: 식약처 김효정 과장
요원3: 국립암센터 김대현 교수
요원4: 대검찰청 박기영 사무관
요원5: 서울시 마약퇴치본부 김종환 본부장
요원6: 법률사무소 진실 박진실 변호사
요원7: 경남을지병원 조성남 원장

드등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마약중독은 재발이 쉽고
의학적으로는 뇌에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판단...
**처벌보다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임**

마약투약자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시설,
사후관리 등 국가차원의
시스템 보완 필요

조성남 강남을지병원 원장

김종환 서울시 마약퇴치본부 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

김대현 국립암센터 교수

강력한 처벌보다는
**충분한 재활치료와
마약의 위험성·경각심에
대한 교육 필요...**
장기적인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

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와 의료종사자들의
자정 노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1부
미션 완료!
(성과)

와
하
와
하
MISSION

